

“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?”

최영순

(인천 호스피스 실무 책임자)

벌써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었다. 7월초부터 출근을 하여 환자를 보고 업무를 보는 마음이 전과는 다르다. 4월에 뭔지 모를 조급한 마음으로 암 검진을 받았다.(물론 아무 증상도 없었으나 이상하게 마음은 조급했다) 그리고 결과 보는 것을 잊고 환자 방문을 다녀오니 전도사님이 부인과 외래에서 여러 번 찾는 전화가 왔었다. 가슴 속 장기 하나가 내려앉는지 덜컹한다. 가방은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외래에 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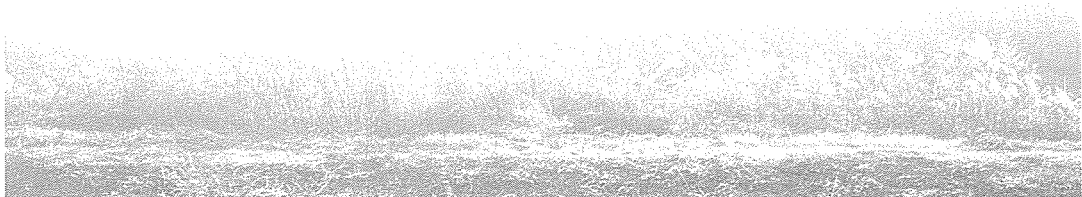
과장님이 이런저런 질문으로 시간을 끌더니 결과를 알려주는데 암이란다. 그러나 초기라며 위로하시느라 바쁘다. 그저 내 머리는 멍하였고 “아이쿠, 암이구나.”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. 일부러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며 생각을 정리하였다.

모두들 궁금한 눈치다. 무거워지는 내 마음을 추스르려고 짐짓 명랑하게 “당첨이네요” 라고 답을 했다. 얼떨떨한 표정인 사무실 식구들에게 과장님의 설명을 전했다. 초기라 다행이지만 암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얼굴이다. 뭐라 이야기할지 몰라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불편하다.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부자연스러웠다.

우선 검사를 시작하면서 사무실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. 부탁을 해야 할 일과 마무리 져야 할 일 등을 처리했다. ‘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나, 놀랄 텐데’ 입원 날자가 정해지고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다. 놀라는 눈으로 보다가 수술을 하면 괜찮을 것임을 설명하자 “수술만 하면 돼요?” 라고 묻는다. 그렇다고 하면서 없는 동안 서로가 잘 돕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했다.

5월 18일 오후에 입원을 하고 21일에 수술을 하였다. 어찌나 아프던지. 팻취를 붙였어도 수술 당일 날은 진통제를 맞아야 했다. 누워있으며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. 내 친구가 올 1월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을 때 방문하여 간단한 수술이듯이 가볍게 이야기 한 것을 후회했다. 호스피스 간호사로 환자의 아픔을 민감하게 보고 공감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착각을 후회한다.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. 좀 더 세심하게 환자를 봐야겠다고 다짐을 한다.

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다.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? 이 일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실까? 그래서 기도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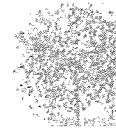
“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? 제가 깨닫게 하소서” 라고 했다.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라는 것이고, 그 다음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다. 이즈음은 “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, 시간을 아끼며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을 허락하소서” 라고 기도를 한다. 이렇게 깨닫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고 기뻐다.

이번 일을 통하여 조기검진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,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후와 수술 후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공감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, 병실에 찾아 주셨던 많은 친지들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감사드린다. 또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던 찬송 시처럼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.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도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.

여러분! 건강검진 잘 하시구요. 언제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!



오늘하루도 선물입니다



- 용철이 -

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

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.

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애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 주는 가족이 있으니

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.

늘 불안으로 가득찬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량하여

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

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.

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풍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연인이 있으니

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

그 많은 선물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이지만

하루 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이지만

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

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

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

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

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.